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4.09.04, 한-EU연구협력센터>

- 집행위, 에너지 관련 HE 공고 개시 계획 발표 및 투자 유치 강조(9.3)
 - 이번 달 말에 개시 예정인 2024년 마지막 대규모 Horizon Europe 공고는 에너지 공급에 중점을 둠
 - 이번 공고는 HE 워크프로그램 2023-24의 13개의 주제를 포함하며, 주제는 미래의 해양 에너지 농장을 위한 기술 개발부터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시장 수용 조치까지 다양
 - 현재까지 HE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에너지 공급 프로젝트 108개에 총 6억 5,000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며,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, 프랑스, 노르웨이 등에서 각각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의 EU 자금을 확보함
- 유럽대학연합, 연구·혁신·교육을 위한 단일 집행위원회의 필요성 강조(9.2)
 - 회원국들이 집행위원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집행위원장은 이번 가을 까지 집행위원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역할을 배정해야 함
 - EUA 회장은 “연구·혁신·교육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는 것은 2019~2024년 임기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”라고 말하며, 이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 명의 집행위원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
 - 이는 유럽의 경쟁력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 연구와 연구 기반 학습에서 와해성 혁신에 이르기까지 전체 혁신 생태계를 고려하는 균형잡힌 전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
- 집행위, 새로운 ‘유럽 극지 조정 사무소(EPCO)’ 설립(9.3)
 - Horizon 2020의 EU-PolarNet2 프로젝트가 개발한 미래의 유럽극지조정 사무소(EPCO)는 유럽극지위원회(EPB) 관리하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스웨덴 우메오에서 운영될 예정
 - EPCO는 극지 과학에 대한 EU 자금 지원 프로젝트 그룹인 ‘EU 극지 클러스터’를 조정하여 이 분야에서 EU의 투자를 최적화하고 시너지를 촉진 할 계획이며, EU 극지 프로젝트와 연구자를 대표하여 집행위와 다른 정책·의사 결정권자가 과학적 극지 문제, 기회, 우선순위 및 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중심점 역할을 할 것
- (기타) ▲EU IP Helpdesk, 호라이즌 유럽 오픈 사이언스 가이드북 발간, ▲독일,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제 과학 협력 위기 직면(8.29) ▲헝가리, HE 자금 지원 금지 결정으로 인한 국제 협력 축소(8.29) ▲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(EOSC), 연합 설립을 위한 논의 진행(8.27) ▲유럽통계청, 유럽 기업의 디지털화 수준 분석(8.29)